

## 기업 전산환경 뉴 패러다임의 선두에서다

- 프레임워크 기술의 축적된 노하우로 세계시장에 도전하는 아토정보기술

지난 9월 과학기술부가 선정하는 3분기 신기술 인정 (KT마크)을 받으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아토정보기술 (대표 강관식). 탄탄한 기술로 세계시장을 향해 신바람나는 도전을 시작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 프레임워크 개발을 주도하는 든든한 아토정보기술 가족들과 강관식 대표(앞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

### Q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A** CBD(Component-Based Development)기반의 웹 개발 프레임워크인 '시너지프레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제품을 패키지 판매와 SI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너지프레임이란 X-인터넷 기반의 웹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를 말합니다. J2EE 또는 .NET 시스템 기반에서 인터넷 및 인트라넷 환경의 기업업무(eBiz)를 개발할 때, 안정성과 성능향상을 보장함을 물론 쉽고 빠르게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지요. 이 솔루션은 단위업무의 시스템을 통합해 실시간기업(RTE)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기업 표준 네트워크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또 설계와 개발을 위한 패턴을 정립할 수 있고, 개발자는 시스템 환경과 무관하게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 Q 지금까지의 사업성과는 어떻습니까?

**A** 1998년부터 수자원공사의 재무통합시스템을 구축하면서 CBD 기반의 프레임워크 개발을 시작한 후, 2001년 프레임워크 기반의 재무통합시스템의 성공적 운영으로 현재까지 유지보수를 통해 노하우를 축적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02년 한화S&C의 ERP패키지 개발에 프레임워크 적용에 성공하였고, 이어 2003년에 건교부 예산시스템 독자수주 및 프레임워크 기반 구축을 세 차례에 걸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에는 기획예산처 디지털 예산회계 BPR/ISP 수주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 Q 벤처인큐베이터에 입주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고, 입주기간 동안 어떤 도움이 되셨나요?

**A** 벤처 지원정책이 잘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금 등의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고, 벤처기업 간 정보 및 기술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 입주를 결심했습니다. 벤처인큐베이터는 무엇보다 정보교환과 인적네트워크 형성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인큐베이터 인프라를 통해 습득한 정보를 비즈니스로 연결시키기까지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요. 인큐베이터에 입주해 있던 시간들을 발판으로, 그곳을 나와서도 현재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Q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대규모 소프트웨어 개발이 발생한 1, 2차 소프트웨어 교체기에 이어 C/S에서 웹으로의 기업시스템 환경이 바뀌는 3차 대규모 소프트웨어 교체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시너지프레임은 eBiz용 웹 시스템 개발에 필수적인 프레임워크 솔루션으로서 3차 교체기에 따른 대규모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외국은 웹으로의 전환이 한국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아토정보기술의 앞선 기술력과 구축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을 것입니다.